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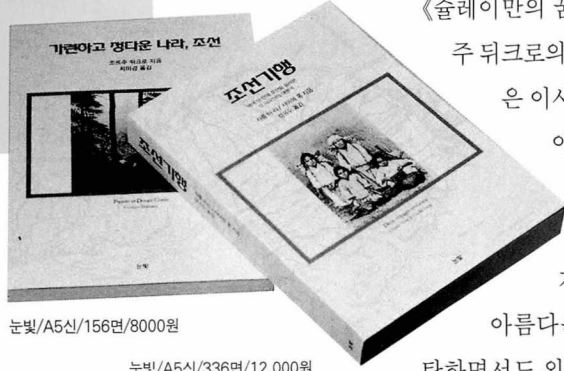
타자의 시선으로 그린 백년 전 우리의 초상화

《조선기행》《가련하고 정다운 나라, 조선》

백여년 전 파란 눈의 이방인 눈에 비친 조선의 산천과 풍속을 기록한 책이 두권 나왔다. 1888년을 전후해 조선을 여행한 두 외국인의 여행기를 모은 《조선기행》(샤를 바라·샤이에 룡, 성귀수)과 1901년 조선을 둘러본 프랑스 문화인류학자의 여행기인 《가련하고 정다운 나라, 조선》(조르주 뒤크로, 최미경, 이상 눈빛)이 그것으로, 백년 전 타자의 시선에 비친 우리의 초상화를 엿볼 수 있는 귀중한 기록들이다.

두 책들은 총22권으로 집대성된 <한말외국인기록>(신복룡 역주, 집문당)에도 빠져 있는 조선전문기로, 제국주의 열강의 거센 입김 앞에서 겨우 몇개의 불빛으로 깜빡이며 망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던 조선의 슬픈 운명과 그 속에서 삶의 맥박을 멈출 수 없었던 조선인들의 일상이 흑백으로 인화된 풍속화처럼 세밀한 필치로 그려져 있다.

프랑스의 여행가이자 지리학자, 민속학자인 샤를 루이 바라의 <조선 종단기>와 미국의 한성주재 총영사로 조선에 머물렀던 샤이에 룡의 <코리아 혹은 조선>을 모은 《조선기행》은 오지나 다름없는 곳을 여행하던 이방인의 날카로운 관찰력으로 기록한 구한말의 '민속지'(民俗誌)다. 특히 제주포, 청도, 부산시가지, 제주도 등 국내문헌에서도 거의 빠져 있는 지역의 풍속을 다루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눈빛/A5신/156면/8000원

눈빛/A5신/336면/12,000원

《솔레이만의 꿈》을 펴낸 작가이기도 한 조르주 뒤크로의 《가련하고 정다운 나라, 조선》은 이사벨라 버드 비숍의 《조선과 이웃나라들》(이인화, 살림)에 버금갈 정도로 빼어난 문체와 날카로운 관찰력이 담긴 기행문이다. 뒤크로는 조선의 아름다운 산화와 매혹적인 문화에 감탄하면서도 외세의 손아귀에 넘어갈 조선의 운명을 예견하면서 연민의 비감에 젖기도 한다.

이 책은 치밀한 관찰기록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유려하면서도 날카로운 문체가 돋보이는 산문으로도 손색이 없다. “한양의 집들은 밀짚고깔 속에 얼굴을 감춘, 별로 부유해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행복한 농촌의 아낙네와 같다” “한양은 아주 감성적인 곳이라 대부분의 조선인들은 연애를 하는 중이다”와 같은 글이 이를 잘 보여준다.

세 명의 여행가들이 조선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입장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 샤를 바라가 탐험가의 호기심으로 조선 특유의 지리와 풍물 수집에 열정을 쏟는다면, 샤이에 룡은 외교관 특유의 간결체로 마치 보고서를 작성하듯 조선을 관찰한 사항을 서술하고 있다. 이에 비해 조르주 뒤크로는 생동감 넘치는 문체로 조선을 잊을 수 없는 이미지의 성으로 축조해간다. —박천홍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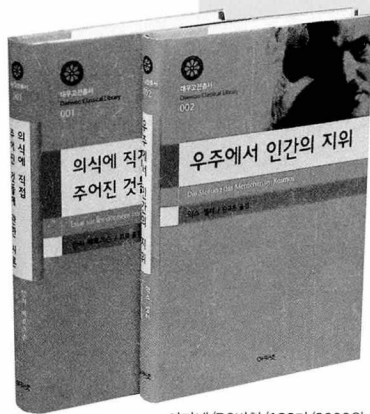
세 명의 여행가들이 조선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입장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 샤를 바라가 탐험가의 호기심으로 조선 특유의 지리와 풍물 수집에 열정을 쏟는다면, 샤이에 룡은 외교관 특유의 간결체로 마치 보고서를 작성하듯 조선을 관찰한 사항을 서술하고 있다. 이에 비해 조르주 뒤크로는 생동감 넘치는 문체로 조선을 잊을 수 없는 이미지의 성으로 축조해간다. —박천홍 기자

<대우학술총서>를 지원하고 있는 대우재단이 새롭게 추진하는 '고전번역사업'으로 <대우고전총서> 제1, 2권이 나란히 나왔다.

제1권 《의식에 직접 주어진 것들에 관한 시론》(앙리 베르크손, 최화)은 최근 프랑스에서 활발히 재조명되고 있는 베르크손의 첫번째 주저다. 이 책에는 베르크손 철학의 핵심인 '지속' 개념이 치밀하게 탐구되고 있다.

질과 양을 혼동함으로써 질적으로 다른 심리적 상태들을 양화하려는 정신물리학적 시도가 잘못됐음을 비판하는 제1장은 마음마저도 물질적 개념구도로 파악하는 종래 심리학에 대한 비판이며, 진정한 시간은 공간과는 완전히 다른 지속임을 밝힌 제2장은 이 책의 핵심이다. 베르크손 철학에 대한 해제, 연보와 참고문헌, 역자의 해설을 통해 초심자도 쉽게 읽을 수 있게 했다.

제2권 《우주에서 인간의 지위》(막스 셸러, 진교훈)은 인간 본질의 의미를 총체적으로 밝혀보려는 철학적 인간학의 효시다. 지은이는 지금까지 신학적, 철학적, 과학적 인간관이 각각 한 시대를 풍미해왔지만, 이렇게 상이한 인간관들이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하고, 이들을 모두 포괄하는 하나의 인간



아카넷/B6변형/182면/9000원

아카넷/B6변형/400면/15,000원

고전의 원형 복원 꿈꾸는 총서

<대우고전총서> 제1, 2권 출간돼

관을 모색하고 있다. 그는 인간의 고유성을 세계 개방성 자아의식과 대상파악능력으로 보고 이런 고유성이 인간 정신에서 활동하고, 인격에서 드러난다고 말한다.

앞으로 계속 출간될 <대우고전총서> 목록은 다음과 같다. 《모놀로기온 & 프로스로그이온》(켄터베리의 안셀무스, 박승찬), 《산수의 기초》(노트롭 프레게, 박준용 외), 《철학의 원리》(르네 데카르트, 원석영), 《학문의 진보》(프랜시스 베이컨, 이종흡), 《신앙과 지식》(헤겔, 황설중),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의 단편》(딜스, 양문흠 외), 《창조적 진화》(앙리 베르크손, 황수영), 《심리학의 원리》(윌리엄 제임스, 정양은) 등이다. —강성민 기자